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최승훈, 이혁 녹취록  
<CONSTRUCT>

일시 : 2017년 8월 26일 (토) 오후 6:00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작가 : 최승훈, 이혁

김인선 : 먼저 두 참여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승훈 작가입니다. 원래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작품을 말로 설명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지만 오늘 큰 용기 내셔서 참여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혁 건축가입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이 공간을 해석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날씨에도 토크에 참여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밌는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독특한 게 저희가 협업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의 작업을 두 사람이서 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이 했다기보다, 두 분이 대화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회의를 하고 어떤 말을 끄집어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각각의 독립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 안에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방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시장을 보시면 사진 작업이 최승훈 작가의 작업이고, 석고로 만든 구조물 형태의 조형물이 이혁 건축가 작업이에요. 원래 두 분은 서울대 조소과를 같이 졸업하신 대학 동기입니다. 이혁 건축가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시다가 건축에 흥미를 가져서 하버드 건축과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최승훈 작가는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활동하면서 미술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막역한 친구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훈 작가가 이 공간 에서 건축가와 같이 무언가를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최대한 물질적인 것을 빼낸 공간을 다뤄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건축가의 전형적인 구조를 탈피한 무언인가를 만든다면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어요. 오늘은 이번 전시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혁 : 일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훈 작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오늘 이 토크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초대 안했어요. 지인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최승훈 작가와 저는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삼아서 술자리를 많이 갖어 왔습니다. 전시를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도 종종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조금 더 상업적인 세팅에서 협업으로 전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최승훈 작가의 사진 작업을 디스플레이 하는 형식으로 인테리어 공간 개념을 전시했어요. 그 때 한번 협업을 하면서 쉽지는 않았지만 재미있었고 순수미술을 위한 공간에서 뭔가 또 같이 해보자고 얘기했죠. 막상 이번에 윌링앤 딜링에서 2인전을 하는 기회가 왔을 때 무엇을 전시 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였고 작업 활동을 계속 해 온 최승훈 작가와 다르게 저는 순수 미술의 맥락에서 작업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야말로 백지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번 전시 계획은 작년 말부터 잡혀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각자 관심이 있는 영역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말로만 하지 말고 습작이라도 보여주자 해서 꾸물꾸물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뭔가가 나온다 싶다가 또 헤매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다가, 다시 취소하기도 하고, 전시 오픈 직전까지도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작품들로 보여드리네요. 그래서 완결도 그렇지만 사실 과정에 더 의미가 있고요. 전시된 작품에서도 그 과정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시물들이 단지 두 사람의 작업을 맞춰 놓은 게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자연스럽게 생겨난 결과물이고, 때문에 이 전시가 결과물 자체보다도 두 사람의 다이얼로그를 보여주는 데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최승훈 : 제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작가와의 대화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작업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저한테는 작업 과정도 그렇고 시작하게 된 이유 같은 경우도 말 할 경우가 있지만 진행 과정을 생각이 아니라 이미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전환시키려면 혹은 내가 이것에 호기심을 왜 가졌지 하는 의미의 코드를 알게 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꽤 많은 작업이 누적되어야지 그 때 비로소 불필요한 말을 안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가 시작되고 이혁 건축가와 이야기 하면서 왜 이 장면을 찍었을 것 같으나 물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다른 인터뷰에서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하고 반문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막연히 뭔가 나는 신성한 신전이나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사물을 볼 때 이런 느낌을 받았 정도로 은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 사진을 찍을 때 과정을 진행할 때 보다 지금 훨씬 더 이유를 알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분명히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작업을 직관적인 태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인 의미가 없으면 저한테 똑같거든요. 만약에 말을 했는데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 사회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매력적이지 않는 의미면 저는 굳이 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것이 매력적인 의미를 찾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의미가 저한테 의미가 이만큼이면 그 안에서 이것은 정말 매력적일 수 있겠다 하는 정말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찾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작가와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런 경직된 상황에서, 강연 같기도 한 형식에서 과연 그 지점을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조심스러웠어요.

김인선 : 사실은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이 작가와의 대화가 그런 틀에 박힌 경직된 성격을 벗어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행사에서는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오늘은 많은 질문기 대해 보겠습니다.

이혁 : 저도 제가 어느 정도의 작품설명이나 작품해석을 위한 힌트를 드릴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보신 분들의 해석이 어떤지, 느낌이 어땠는지 그런 것을 듣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응답을 하다보면 더 재미있는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코멘트를 많이 해주세요.

김인선 : 먼저 이 전시를 보시면서 느낀 점을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고 거기서 반응을 해주시

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 작품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작업의 주제나 소재 자체가 본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자체가 이미지의 표피를 보여주는 경우는 해당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빼고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최승훈 작가를 오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작가의 어떤 면을 보여 주는 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승훈 작가의 말투를 들어보면 조근조근 하고 앉아있는 매무새도 암전하고 그래서 살짝 조용하고 마초적인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작품에 상당히 남성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알던 인물과 이 작품에 드러나는 것이 다르구나. 이 작가에게는 이런 면이 있었구나”하는 것을 오랫동안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이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 작가를 처음 보거나 작가를 안보고 이미지로만 접해야 하는 경우에는 풍경 이미지에 집중을 하겠죠. 풍경 자체에 작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객관화해서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지들이 엄청난 완벽주의로 탄생을 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감이나 질감 등을 표현하는 데 엄청난 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것을 뽑아내기까지 이 작가가 그 이미지에 대한 굉장한 집착, 재료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감상을 하고 느낌을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객 : 전 사실 최근에 건축과 예술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건축가님 작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도면으로부터 실제로 시공이 되는 과정을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과정을 시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축을 할 때 설계를 먼저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실용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제일 먼저 고려를 한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다 없어지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구축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주게 되신 건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건축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혁 :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제가 그 전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소개 글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설치된 결과보다도 제작과정 자체가 저에게 의미있는 일이었어요. 여지껏 드로잉을 그려서 시공자에게 보여주고 말로써 작업을 지시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작업을 하다가 제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직접 만들어 보자 싶었어요. 그리고 건축 요소 중 가장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만들자고 생각했어요. 벽체와 바닥 기둥같은... 제가 이 과정 중에 느낀 것은, 건축가들은 먼저 공간에 대한 상상을 하고 좀 더 기능적인 것,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것 등등이 혼합이 되면서 설계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재료 느낌에서 시작했고 그 느낌이 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공간을 상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반년 전부터 형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재료로서 석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석고 자체를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둘이서 미팅을 하던 중에 (최승훈 작가의) 저 사진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저는 주변에서 항상 보는 익숙한 이미지인데, 아마 저 말고도 다들 흔하게 보는 장면일 거예요. 서울에 공사현장 없는 동네는 없기 때문에... 그때 가림막 천이 갖는 저 느낌이 저에게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승훈 작가에게 우리 전시에 저 사진을 꼭 포함시키자 부탁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무작정 그 사진에 나오는 가림막 천을 사왔어요. 제가 시공현장에서 항상 보는 재료이지만 시공사에서 구입하기 때

문에 제가 저 천을 산 건 처음이었어요. 가림막 천은 싸구려, 소모품, 일회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걸 석고와 결합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느낌이 재미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전시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 두 재료를 결합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계속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얇게, 좀 더 얇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저 앞과 뒤의 대비되는 느낌, 고결하고 상징적이고 이상적인 건축적인 공간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하얀 석고와, 일회적이고 때가 타고 찢기고 안의 건물이 완성되면 버려지는 가림막 천, 두 개의 재료를 압착시켜 나오는 결합체가 갖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만들어내는 형태는 벽이나 기둥, 바닥과 같은 건축요소이지만 이 과정이나 접근 방법이 건축과 정 반대에서 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색다른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다시 어떻게 건축에 접목이 되느냐를 질문해주셨는데, (column by column 작품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비슷한 형태의 두 기둥이 있는데요. 두 개의 기둥이 보여주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사실 이 둘은 굉장히 다릅니다. 한 쪽은 속이 꽉 차있는 진짜 기둥입니다. 그 옆의 기둥은 속이 비어있는 가짜예요. 하지만 밀도감이나 자체가 갖는 아우라는 가짜가 더 강하죠. 건축 공간에서 저 가짜기둥의 밀도감과 풍기는 분위기를 담을 수 있을까? 그게 앞으로 저에게 과제이겠죠.

관객 : 저 천은 원래 기능이 오로지 공사 현장을 가리기 위한 것인가요?

이혁 : 예, 그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김인선 : 저는 건축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 이혁 건축가의 작품을 보면 벽면에서 살짝 띄어놓거나, 살짝 기대거나, 공간 구조에 맞게 걸쳐놓거나, 창틀에 벽에 세워놓거나 바닥에서 살짝 띄워놓는다던지 등의 방식에서 원래 구조를 따라서 이 실루엣을 잠깐 잠깐 건드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이 꼭 그 자체로서 건축을 표명하기 보단 원래의 건축적인 요소를 계속 드러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건축적인 뉘앙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하면서 본인이 의도를 했을까 싶어요.

최승훈 :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재밌게 본 것은 저도 이혁 건축가와 대화를 하고 했지만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한테 있어서 재미있었던 것은 건축적인 구조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진짜 디테일 한 것, 예를 들어, 모서리에서 느껴지는 석고의 느낌과 시멘트가 주는 느낌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흰색도 다르고 석고의 미세한 차이에 의한 예민함 그런 디테일 같은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조각 미술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혁 건축가에게는 그런 물성에 대한 태도가 있는 듯해요. 그냥 이건 흰색 벽 평면, 이쪽은 천 이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하얀색이 있고 모서리에도 무수히 많은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예민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구조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건축가와와는 다른, 조각가와 건축가 사이라고 할까요. 그 지점을 절묘하게 잘 찾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가림막 천이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의 작업에서 동시에 등장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큰 차이는 가림막 천에서 보여 지는 어떤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더러움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게 더러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논리적인 구조와 조형성을 가지고 있는 더러움, 오래된 시간 이런 것들이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

서 찍긴 했지만 그런 요소들이 결합된 그 사이 정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혁 건축가가 어느 날 가림막 천을 샀다고 문자가 왔어요. 저희끼리만 작업 얘기를 하던 중간에 청계천 다니다가 가림막 천을 샀다고 하는데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 이혁씨가 실마리를 풀었구나’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풀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던 제일 큰 이유가 저한테 가림막 천은 절대 살 용기가 나지 않는 오브제였어요. 저에게는 너무 촌스러웠고 파스텔 톤도 정말 이상한 톤의 배합이고 누군가 분명히 디자인 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의문을 가질 정도의 이상한 오브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샀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접근하지 않는 어떤 지점을 건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가림막 천으로 해서 기술적인 테스트를 했다고 보여주는데, 됐다! 이제 뒤로 빠져서 있어도 되겠구나했죠. 그리고 그게 공간에 설치되었는데 그전에 제가 알고 있던 오브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술 같은 전환이 있거든요. 합판이 합판으로 안 보이고 시멘트가 시멘트로 안 보이고 형광등이 형광등으로 안 보이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림막 천이 가림막 천으로 안 보이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흥미롭게 봤어요. 이 친구가 건축을 했지만 미술 전공을 해서 이런 지점, 구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물성에 대한 실험, 그것에 대한 결합이라든지 이런 감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번 전시를 위한 책자의 표지를 만들 때 보통 표지가 제일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가림막 천이지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전환된 오브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 전시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혁 : 가림막 천이 자세히 보면 솜하고 실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천이라고는 하지만 한 쪽은 하얀 솜이고요. 그 뒷면은 여러 가지 색의 실로 짠 거예요. 실이 찢어지지 않게 버텨준다면 솜은 먼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재료를 배합을 했을 텐데, 물계 갠 석고에 가림막 천을 접합시키면, 흰색의 솜의 석고와 섞이면서 보이지 않게 밀착이 돼요. 실은 선재로써 장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구요. 또 이 천이 그리드로 짜였기 때문에 네모나게 자르기도 편해요. 익숙한 재료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쓰이기에 너무 좋구나 하는 그런 재발견이었습시다.

김인선 : 석고에 천을 덮고 잘랐어요?

이혁 : 굳은 다음에 자르죠.

관객 : 이혁 건축가님이 쓰시는 이 가림막 천은 일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인데 그 임시적인 것으로 기본 구조를 만드신 거잖아요. 기능을 만들었다든지 전환을 했다든지 그러면서 물성에 대한 탐구를 하신 것 같아요.

이혁 : 공사장에 매달려서 바람에 흔들리던 천이 석고와 압착이 되면서 자신의 형태를 찾게 된 겁니다.

김인선 : 물성을 직접 손으로 다루는 게 건축가의 주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건축가들은 설계도로 다 상상을 하잖아요. 입체를 직접 다루지 않고 도면 안에서 구조물을 미리 세워서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는 물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혁 : 그렇기도 해요. 건축설계라는 것이 지어가면서 발전시키는 과정이 아니에요. 설계도를 다 끝내놓으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지어지는...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물성과 공간감에 대한 예상이 틀릴 때도 있고,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지만, 짓는 과정 중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인선 :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승훈 작가 역시 재료를 예민하게 다루세요. 원래는 저 이미지를 필름지 같은 것하다가 출력해서 뒤에서 조명을 비추어서 이미지가 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게 의도였는데 그것을 해보시고는 다시 다른 재료로 바꾼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재료로 각각 출력한 이미지는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전까지는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게 마음에 안 드셔서 새로 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최승훈 : 같은 크기로 똑같이 했었는데 저는 어쨌든 제 상상 속에 있는 것보다 밝은 거예요. 이혁 건축가의 조도와 제가 생각하는 조도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진보다는 딱 물질로 안 오고 은은하게 유령 같은 상태로 만져지지 않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계속 작업실에서 테스트 했던 것은 광고에서 많이 쓰이는 재료에 출력해서 이미지를 한꺼번에 짝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명에 디밍(dimming) 장치를 하여 점차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는 효과를 주려고 했죠. 콤비네이션 방식으로 두 개가 보이다가 하나가 보이는 식으로 해서 세팅도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하려고 이것 하나를 결국 시도해보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것보다 더 밝은 조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완벽주의는 아니고요. 이것을 활용할 때 저한테 있어서는 누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뭔가 조금 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혁 건축가가 이것 자체로서 물성이 되게 좋다고 그냥 분위기나 임팩트로 가지 않고 이거 자체가 세니까 딱 놓여져도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사진의 용도에 대해서 항상 그냥 사진은 이미지지 액자 안에 들어가는 사진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 상태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여줄 때도 처음에 이혁 건축가가 먼저 석고를 저렇게 벽 형태가 아니라 바닥에 놓이는 부조를 이야기해서 웬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떠오른 다음에 이것과 그것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겠다. 그것은 눈으로 생각한 것이지 의미로 생각한 것이 아니죠.

직접 물성 앞에 물질 앞에 서봤느냐 안 서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조그만 사진 혹은 이미지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봤을 때와 실제 이미지 앞에 섰을 때,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크기에 이런 재료에 이런 조명에 이런 환경에 서서 이것을 감상하고 나름대로 그것의 기억이나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저희끼리의 진행과정이나 이걸 저희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만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은 아직 고민중이에요.

김인선 : 그리고 저는 2014년도에 지하에 공간이 있었을 당시 전시했을 때, 여기서 보여주고자 원래 의도했던 방식의 환경을 조성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업들이 영상이나 사진 자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스크린으로 안 쓰는 특이한 재료들을 일부러 다 골라서 거기다 비추고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보이고 공간이 그것과 어떻게 반응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또 어떻게 공간이 만들어지는지 등 환경적인 면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당시 사

진을 보면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저는 이번 전시에서 획기적으로 그 부분이 변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최승훈 작가가 바라보는 대상을 관람자로서 동일하게 바라본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박선민씨와 작업할 때 두 분이 협의했던 이미지 속에서 최승훈 작가가 환경을 조성하는 테크닉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최승훈 작가가 점점 본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전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했어요. 사실 처음의 계획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배경의 역할을 하고 공간 전체를 설치나 조각의 입장에서 접근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진 이미지로서 돋보이게 만드는 결론으로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승훈 작가가 어떤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뽑아내고 제시하는 데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혁 : 최승훈 작가와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색온도’, 그리고 ‘사진’이었어요. 철물점에 전구를 사러 가면 전구색, 주백색, 주광색 이렇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색온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구 색하면 3000k, 주백색 5000k가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다양한 색온도의 전구가 있는 거죠. 같은 5000k 라도 회사마다 색깔이 달라요. 전시장 조명의 색온도를 두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조형 작업에 들어가는 전구 색온도와 사진을 비추는 전구 색온도가 같아야 하느냐 틀려야 하느냐, 다르면 어느 정도 달라야 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한참을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많이 한 이야기는 ‘사진’이었어요. 처음에는 최승훈 작가가 이 이미지들을 백그라운드로서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명 효과로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꺼지고 이런 것을 계획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미지를 출력한 재료가 필름에서 종이로 바뀌고, 조명을 뒤가 아닌 앞에서 비추는 것으로 바꾸었고, 이런 과정에서 그림 이것을 사진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설치로 생각해야 하는지 한참을 논의했어요. 우리가 사진의 리얼리즘을 이야기할 때 수백 가지의 이해되는 방식이 있고, 용어를 쓰는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받아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보다 최승훈 작가가 할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ㅎㅎ.

저는 최승훈 작가의 사진들에서 저 하늘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흰색으로 날린 것 같지만 흐린 날 찍었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건데 사진 속 구름 낀 하늘하고 전구 빛의 색감, 조명이 떨어지는 방식 등이 결합되면서 묘한 리얼리티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동네에 마실 나갔을 때 마주치게 되는 공사장의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 사진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다가 온 이유가 사진 속 하늘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최승훈 : 이혁 건축가가 이야기 했듯이 약간 구름이 끼어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거고요. 그림자가 없는 상태, 즉 콘트라스트가 없이 물질 자체로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더 익숙하면서도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런 날씨를 기다려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아주 많이 다르면 그렇게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달라야지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느낌으로는 분명히 다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 지점을 찾는 것이 항상 재밌어요. 마치 맛집의 비밀 레시피가 있듯이 그런 느낌이 존재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작업으로 마무리할 때, 예를 들어 크기는 미묘한 차이에 의해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 이번에 공간의 제약에 맞춘 사이즈로 결정했던 거 같아요. 이것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현상을 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거죠. 대상을 이상화해서 조형적으로 아름답거나 멋진 구도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제 기억을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준들이 모여서 스타일이 되는 것이겠지요.

김인선 : 지금하신 이 이야기가 만들고 계시는 책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 보여요.

최승훈 : 다 비슷한 지점이 있죠.

관객 : 그렇다면 이 연출 이전의 과정이 궁금한데요.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 세 장의 이미지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승훈 : 일단은 이 시리즈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열 장 정도 더 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작업이 보통은 다른 사진들 특별하게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은 사진들 같은 경우 사진은 찍는 행위, 습관이거든요. 습관이고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포토그래퍼들이 찍는 것에 가까울 거예요. 수 만 가지 사진 중에서 어떻게 무엇을 고르고 제시하지? 마치 요리사가 요리는 다 끝났는데 맛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담을지 무엇을 먼저 먹을지 생각하는 과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직관적이고 어떤 이유에서 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해요. 왜 이 세 장을 선택했냐고 물을 때 모르겠어요. 아이들 미술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미술은 예쁘고 멋있게 보여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미술은 이미지로 생각하고 관찰하는 과정이 말로 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미술이 당연히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방금 주신 질문 같은 경우에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정을 말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말할 수 없는 거죠.

관객 : 이미지에서 가림막 천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궁금해요.

최승훈 : 이 전시에서 가림막 천이 요소가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 것은 맞습니다. 그게 꼭 건축가와 작업을 해서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결정해나가는 과정에서 가림막 천, 건축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여행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어 나 석고로 할래’ 하다가 ‘그럼 이 사진이 어울릴 것 같아’ 등 술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에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을 짚어나가는 형식이었어요. 왜 가림막이었냐고 물으시면 아직까지 저도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건축가와 함께 하게 되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김인선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이런 환경에서 다른 지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화이트큐브를 지우고 싶어 해요. 공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마치 이렇게 생기지 않은 것처럼 바꾸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이런 환경에서 반복해서 전시하다보니까 계속 그것을 바꿔보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전시하면서 이혁 건축가는 환경의 아주 미세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보와 벽 사이라든지 보의 전등 조건이라든지 저하고 전혀 다른 지점들을 고민했어요. 제가 이것을 지우고 싶어 하는 형식이라면, 이혁 건축가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짚어내더라고요. 큰 의미 중에 하나죠. 제가 해오지 않은



방식, 관심 갖지 않는 방식 그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작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김인선 : 아까 책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보면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가 두 개로 접혀져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미지가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 안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최대한으로 경우의 수를 두면서 보게 됩니다. 저번에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관객이 전시를 볼 때 보는 시선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서로 다른 시선이 교차하는 방식을 구현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작년에도 행사 때 보여 주신 적이 있고 이번에 저희 도록에도 적용해서 만드셨어요. 100권이 다 다르잖아요. 이미지는 비슷비슷한데 레이아웃이 다 달라요. 그렇게 모두 다른 책 100권을 만들겠다고 선언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접었다 폈다 하면서 안 그래도 달라지는데 책의 레이아웃도 제각각 다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승훈 : 전시가 무엇인가를 발표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이전까지는 생각 못했던 무언가를 습득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도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실행해 볼 기회인 거예요. 제가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번이 그것을 실험해 볼 첫 기회였거든요.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뽑으면서 바꿔보고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진을 출력해서 보고 나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찾거든요. 그것이 100권을 다르게 했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설명해주셨듯이 모든 분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가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다르다는 것에서 생기는 애착이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매력도 있고요. 저 형식이 저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은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건데 사진을 보면서 항상 아무리 잘 찍고 해도 항상 아쉬운 거예요. 한 장의 사진으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때 그 장소를 걸어 다니고 입체적으로 공간적으로 기억하는데 사진은 너무 평면적인 거예요. 영상도 물질이 아니니까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과 물성을 가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같은 썸을 다르게 조합하면 이쪽에 놓고 저쪽에 놓고 하면서 어느 각도가 좋을까 고민했어요. 입체적인 장소에 대한 기억을 사진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저 형식을 가지면 펼치고 접고 하는 과정에서 책의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김인선 : 책을 만져보면 질감도 좋아요. 손으로 넘기기 때문에 촉각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 듯해요. 구입하시고 싶으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웃음)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관객 : 이혁 건축가께 질문이 있는데 공간을 부여받은 후에 석고를 재료로 선택하셨잖아요.

이혁 : 갤러리는 이전에도 봐서 대충 어떤 공간인지 알고 있었어요. 만들다보니 재료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관객 : 공간이 다 흰색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흰색이 재료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이혁 :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갤러리의 흰색은 페인트의 흰색이고 석고가 가진 흰색은

또 다르죠. 흰 벽은 잡다한 요소들을 다 빼고 공간자체와 빛만을 보여주는 데에 이상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갤러리 벽이 흰 색이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관객 : 저는 전시를 보면서 석고와 공간이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폐허 같은 공간이 주어진다면 또 어떤 전시를 구성을 하실 수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이혁 : 아까 최승훈 작가가 갤러리의 개념, 역할에 대한 접근을 했다면, 저는 갤러리에서 구체적인 공간적인 성격만을 보고 접근한 것 같아요. 이번 설치작업을 할 때에 이 공간이 갤러리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에게 주어진 공간이 마침 갤러리였던 거지 다른 어떤 공간에서 작업을 했다 해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전시 설치를 끝내고 나서는 이보다 좀 더 거친 설치공간이 주어졌다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풀었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김인선 : 무지개 가림막 천과 석고의 위치가 앞뒤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웃음)

관객 : 최승훈 작가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사진 작품을 화이트 큐브 안에서 볼 때 아무래도 미술 작품으로 대하다 보니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미술은 예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왠지 다른 작가 분이라면 이런 사진을 했을 때 모서리 부분에 다른 건물이 나온 것을 포토샵으로 가린다든가 좀 더 주제가 되는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 조각적으로 다가오게 조작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전혀 조작하지 않고 다 남겨두신 이유도 궁금하고 본인의 기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기억에 남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도라면 그 기억을 보여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요.

최승훈 : 일단 뒤의 질문부터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 전시에서 내 기억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사진의 색과 디테일을 조정할 때 어두워도 괜찮고 조금 밝아도 괜찮고 그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예쁘게 보여주려고 색을 더 화사하게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갔을 때 어땠지 하는 것을 완벽하지 않더라도 찾아 나가요. 그런 의미에서 사진에 대한 기억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것 입니다. 관객이 작업을 대할 때 주변에 조금씩 남겨진 부분들을 조형, 구조, 색깔로 감상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삼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남겨진 부분에 그런 요소가 많아요.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트리밍을 하죠. 트리밍을 할 때에는 주인공 이외의 세계를 조금 더 남겨두어서 콘트라스트를 만들려고 해요. 이것도 역지로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면서 직관적으로 하긴 해요. 그런데 해놓고 나서 항상 찝찝찝찝 잡초처럼 주인공 이외의 것들이 남는 것 같아요.

관객 :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두 분이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궁금해져요. 두 분께서는 의미가 있지만 남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색온도나 사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조명 같은 것도 결국 결정하신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설계할 때 실제로 앞에 있지 않지만 만들고 마주했을 때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결국은 두 분이서 합의하는 지점을 찾아내신 거잖아요. 사진과 필름에서도 변화가 있었구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같이 결정을 내린 것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혁 : 구질구질한 대화였어요. (웃음) 정작 중요한 얘기들은 별 말이 필요 없어요. 처음 가림막 천을 사서 습작을 만들어보고 사진을 찍어 최승훈 작가에게 “이거 어때?”하고 보냈는데 최승훈 작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고 보내왔어요. 정말 중요한 공간개념에 합의하고 둘이 교감을 하는 순간은 별 말이 필요 없는데,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구질구질한 말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이 전구 사봤나. 이걸 더 노랗고 이걸 더 하얗고.. 녹색은 빼야지. 이걸 잘라야 하는데 톱으로 잘라야 하나. 며칠 안 남았는데, 가게에서 잘라 오는 게 우리 고생 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관객 : 동시에 느끼시는 건가요?

이혁 :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여서 그런지 내가 이 친구한테 서로 우리가 동의를 했다고 느낄 때는 바로 통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야 하고 느끼는 거죠.

김인선 : 두 분이 삼십 년 지기예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웃음)

최승훈 : (웃음) 서로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취향을 뛰어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실험을 하면서 구질구질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과정을 가지고 노는 거죠. 소꿉장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소꿉장난을 할 때 정답을 두고 하지는 않잖아요. “옳다”라는 것 없이 재미있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 있잖아요. 이 전시도 그런 요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둘이서 술친구니깐 술 마시면서 안주삼아 재미있는 게 없을까 입버릇처럼 같이 해보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물론 30년 동안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완벽한 능력치에 의해 30년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지점을 알고 있고 어떻게 말을 하고 하는 게 30년 동안 쌓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서로 훨씬 많이 이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신뢰라는 것이겠죠. 이 친구가 나보다 저 나온, 좋은 점을 보는 것 같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이 작업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박선민씨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 때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이 지점에서는 나보다 낫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인 상태에서 편하게,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 같아요.

관객 : 협업의 과정이 작업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다보니, 관객이 과정에 대한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것 같아요. 저도 협업 과정에 대해서 고민했었기 때문에, 협업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승훈 : 협업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말할 수 있지만 협업을 해야 되는지, 더 좋은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협업적인 부분은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인선 : 저희랑 전시를 했던 임가영 작가인데요. 일전에 아버지와 협업하는 전시를 했었어요. 벽 전체에 페인팅을 하고 서로 나눴던 대화를 기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에서는 같은 협업이라도 주 진행자와 참여자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만들어져 가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번 전시는 다른 방식의, 성격 자체가 다른 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협업을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물론 임가영, 최승훈, 이혁 작가가 한 협업은 워낙 계획이 되어 있고 협업하는 관계의 신뢰도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으로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두 분이 안 싸우셨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서로에 대해서 동등한 위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상적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임가영 작가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특정 역할을 정확히 맡겼고 그 역할 안에서도 또 임가영 작가가 지시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이고 최승훈, 이혁 작가는 나름의 전문분야에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가 보이는 협업이 있는가하면 기대가 되는 협업이 있는 것 같아요.